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개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사업” 세미나 참석기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병 국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는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보건을 중점 지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금번에 산업장 근로자들중에서도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보건사업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사업”이란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싱가폴의 노동성의 산업안전 보건국의 후원을 받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Dr Wang 이 주관책임자로서 선임되어 1986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까지 5일간 싱가포르 시내의 Novotel Orchid Inn 호텔에서 12개국에서 참가한 13명 대표들과 참관자 6명(싱가폴 4명, 한국 2명) 그리고 WHO를 대표한 자문관들 모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 첫날 개회식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장인 Dr Hiroshi Nakajma 와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하여 노동안전 분과위 위원장인 국회의원 Mr. Eugene Yap 이 참석 하였고 ILO를 대표하여 Mr. Wenyi Fa 가 참석하여 각각 차사를 하였다. 모두 차사를 통해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기존의 법적 혜택이나 기타 서비스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보건사업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시기적절히 본 세미나를 주관한 WHO 지역 사무소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공식 개회식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세미나 일정에 들어가서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기록담당할 대표를 선임하였다. 회장에는 뉴질랜드 대표인 Dr Stokes 가 맡았고, 부회장은 중공대표인 Dr Gu 가 선임되었으며 기록담당에는 팔리핀 대표인 Dr Bonoan 가 선임되었다.

참고로 참가한 11개국을 열거하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피지, 파푸아 뉴기니아, 중공 그리고 베트남이었다.

세미나를 주제할 회장단이 선임된 후 월요일과 화요일 2일에 걸쳐 각 나라의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각나라의 자세한 산업보건실태는 다른 기회에 소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일간의 각나라의 산업보건 실태 발표후 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토의와 검토가 진행되었다.

선정된 5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정책과 관련입법

- 2) 산업안전보건 사업의 조직과 관리
- 3) 일차의료사업과 산업보건
- 4) 훈련과 교육
- 5) 연구와 개발

본인은 5개 주제중 “연구와 개발”의 주제를 주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토의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건에 관한 국가정책수립이나 입법 시에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주, 현장책임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나라에 따라서는 소관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음)가 요구되고, 아울러 전문기관(대학, 연구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보건 사업은 기존 의료전달체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 사업장별로 산업보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소규모 기업이 공동 출자하거나 정부 기관 등에서 세운 산업보건센터 등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사업에는 예산정책이 뒤따르므로 기업주가 영세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지역사회가 공동책임을 지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보건의 일차적인 의무는 기업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일부국가에서는 농촌에 공장이 있을 경우 기존 공중보건사업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산업보건 사업을 행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

4) 산업보건 사업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내용이어야 한다.

5) 근로자들과 경영주 그리고 전문가들간에 산업보건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6)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사업에 관련된 연구와 개발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직접관련된 예방측면이 강조된 주제이어야 하며 문제의 파악이나 검토등에 관한 연구주제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각국간에 산업보건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한 세미나나 Workshop을 개최하도록 건의하였다.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의 중요성과 이들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직업병 발생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다.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산업체제와 직업병을 극소화시키는 것은 모든 산업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많은 재원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국가에서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개선방법은 많지 않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토의하였고, 현실적으로 조속한 개선조치 등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각국에서 최소한도로 근로자들 특히 영세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최소한도 영세근로자들이 법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도 5인이하의 사업장근로자들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1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산재 보상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우리도 하루 바빠 모든 근로자들이 법의 보존속에 마음놓고 개인과 가정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는 산업역군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